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6호 (2026.06.26)

■ 이 슈

(경제) 2026 상반기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6호 (2026.06.26)

Cotents

I. 이 슈

(경제) 2026 상반기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경제) 5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 11

(경제) 오는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진행 11

(경제)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및 주택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시행 12

(경제) 온누리상품권, 개편을 통해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지원 강화 12

(경제) 수도권 전철 이용객 대상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실시 13

(금융)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13

(산업) 산업부,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 발표 14

(산업)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전면 개편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상민경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류동훈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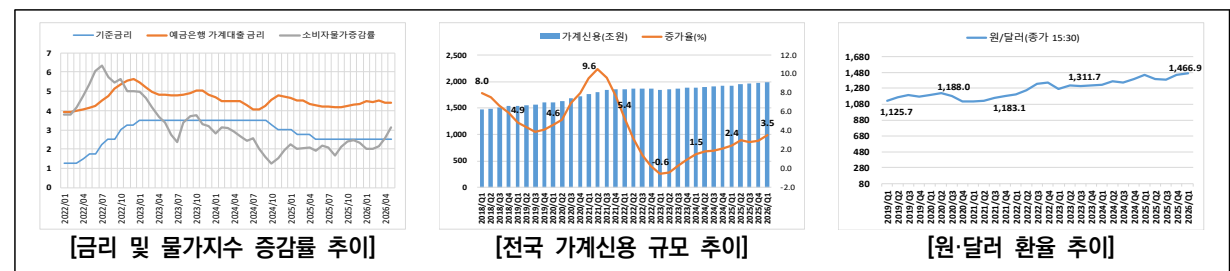
경제

2026 상반기 인천시 가계부채 현황 점검¹⁾

+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가계부채 #구성 변화

- 2025년 7월 1일 ‘스트레스 DSR²⁾ 3단계³⁾’가 전면 시행된 후 하반기 들어 수도권을 겨냥한 가계부채·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국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재확대되고 있으며 대출금리 반등 등으로 인해 가계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인천시 가계부채의 건전성 점검이 필요
 -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은행권·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하는 단계로,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2026년 상반기까지 2단계 수준(50%)을 한시 유예 중
 - 인천시는 수도권에 해당하여 유예 기준에서 제외되는 데다 수도권 대상 부동산 규제까지 함께 적용됨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의 효과가 가장 온전히 나타나는 지역
 - 전국 가계신용 잔액은 2026년 3월 말 기준 약 1,99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하였으며 증가율도 2024년 1%대에서 2026년 1분기 3.5%까지 재가속하여, 규제 강화에도 전국 단위에서는 부채가 재확대되는 모습
 - 가계의 상환 여건 측면 역시 기준금리는 2.5%로 인하된 뒤 동결되었으나,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이를 따라 내리지 않고 2025년 9월(4.17%)을 저점으로 반등하여 2026년 3월 4.51%까지 상승
 - 또한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반등하고(5월 3.1%) 원·달러 환율도 1분기 말 약 1,530원까지 상승하며, 대출금리·물가·환율의 동반 상승이 가계의 소비 여력과 상환 여건을 압박하는 하방위험으로 작용
 - 이에 본 고에서는 KCB 신용융합정보를 활용하여 인천시 가계부채의 흐름과 특징을 짚고, 차주 특성별로 위험의 소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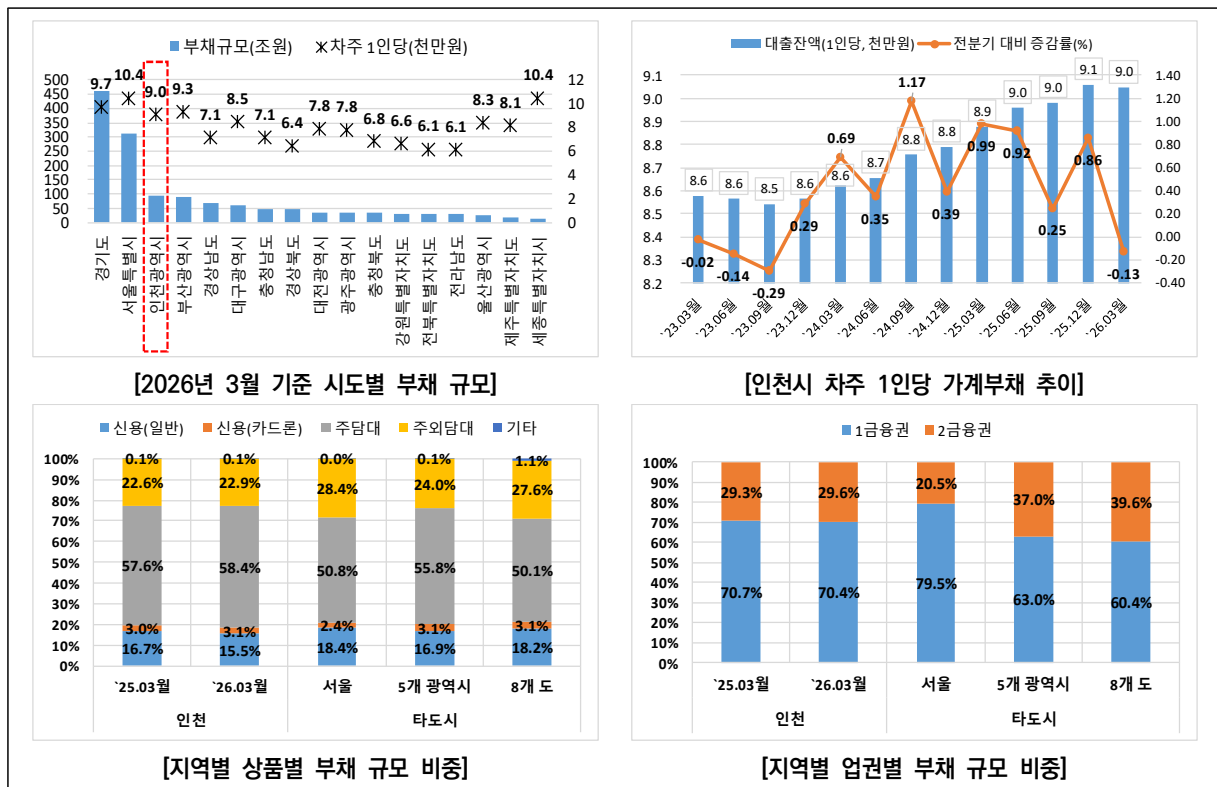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참고 및 재구성
 * 주 : 물가지수 증감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원·달러 환율은 15:30 종가 분기 평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전국 물가지수·기준금리·가계신용·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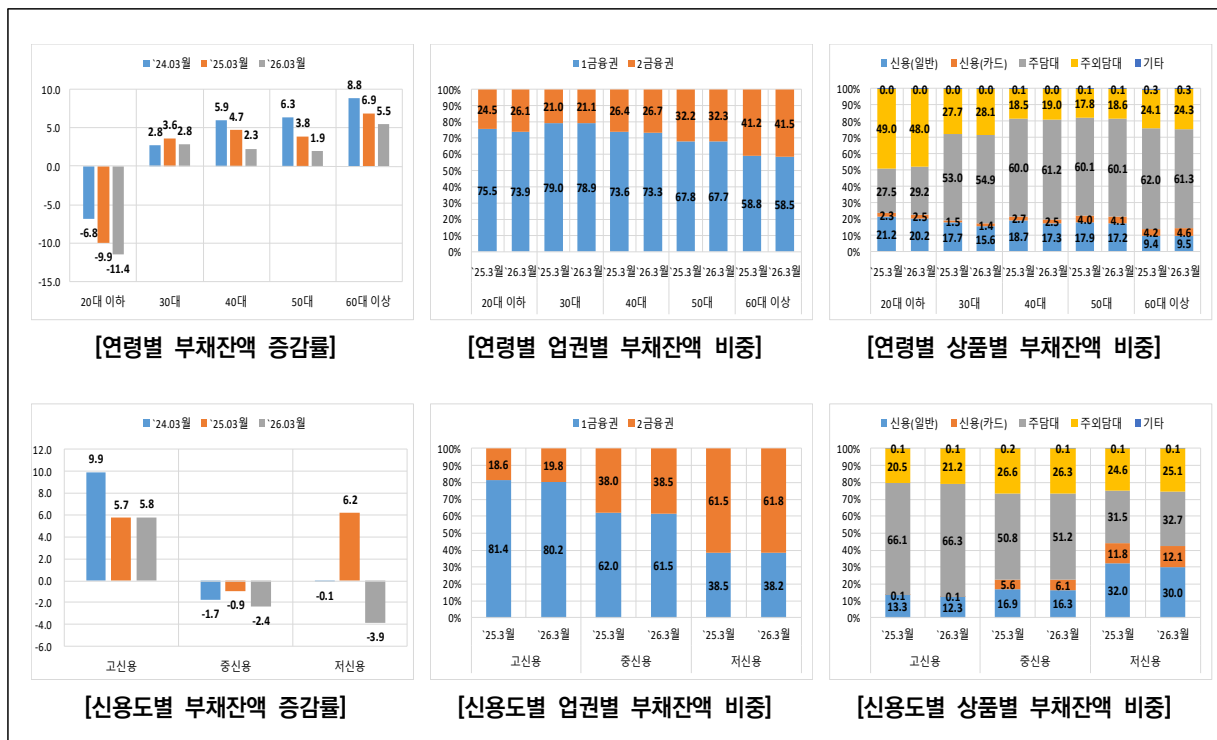
1) 본 이슈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시도별 신용융합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어, 통계청·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통계와 차이가 존재함.
 2) DSR(Debt Service Ratio)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연간 총부채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기본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
 3) 스트레스 DSR은 2024년부터 3단계로 도입, 1단계('24.02~'24.08) 25%, 2단계('24.09~'25.06) 50%의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적용.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내 최고 가계대출 금리와 기준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정하며, 1.5%~3.0% 범위에서 결정.

○ 2026년 3월 인천시 가계부채는 전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와 달리 1인당 부채가 약 2년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1금융권·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구성을 유지

- 인천시 가계대출 잔액은 약 94.4조 원으로 전국 3번째이며, 1인당 가계부채는 약 9,048만 원으로 전국 5번째⁴⁾ 수준
- 인천의 '26년 3월 가계부채 잔액이 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전국: +0.3%), 1인당 가계부채는 '25년 12월(9,059만 원)을 정점으로 0.13% 감소하며 약 2년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전국: +0.4%)⁵⁾
- 상품별 비중은 주택담보대출이 58.4%로 가장 크고 △주택 외 담보대출(22.9%) △일반신용대출(15.5%) △카드신용대출(3.1%) 순으로, 주담대 비중이 전년동월대비 0.8%p 확대되어 서울(50.8%)·5개 광역시 평균(55.8%) 비중을 웃도는 등 담보대출 쏠림 현상이 뚜렷
- 업권별⁶⁾ 비중은 1금융권이 70.4%로 5개 광역시·8개 도 등 타 시도보다 높아 금리·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을 낮추는 요인이거나, 금액 면에서는 1금융권이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여 추후 살펴볼 일부 차주의 2금융권 의존과 맞닿아 있어 주시할 필요⁷⁾



- 차주 특성별로 보면 부채 증가를 주도하던 고연령·저신용 차주의 증가세가 진정되어 규제 효과가 확인되나, 저소득⁸⁾ 차주의 부채는 오히려 급증하는 등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 구성 변화에 유의가 필요
- '26년 3월 인천시 가계부채를 차주 특성별로 구분하면, 종전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60대 이상·저신용 차주에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거나 감소로 전환
 - 연령별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5.5%로 가장 높으나 전년동월(6.9%)대비 둔화, 20대 이하는 -11.4%로 감소폭 확대⁹⁾
 - 신용도별로는 전년동월 6%대였던 저신용 차주의 부채 증가율이 '26년 3월 -3.9%로 감소 전환하였으며, 고신용 차주(5.8%)도 증가세가 진정되는 등 규제가 가장 위험한 차주군의 부채부터 눌렸음을 시사
 - 다만, 대출 구성에서는 차주의 재무 여건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여, 저신용·저소득 차주일수록 2금융권·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유지
 - 상품 구성에서 저신용 차주는 일반신용대출 비중이 30.0%로 고신용(12.3%)의 2배를 넘는 등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고신용 차주는 주담대(66.3%) 중심으로 담보 기반이 탄탄한 상황
 -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일반신용대출 비중이 20.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주담대는 29.2% 수준에 그치지만, 40대 이상은 주담대 비중이 60%를 웃돌아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 기반이 두터운 구조
 - 즉 전반적인 부채 증가세는 진정됐으나 △60대 이상 △저신용 등 차주의 질적 취약함이 남아 있고, 저소득 차주는 부채가 다시 늘고 있어 총량 진정과 별개로 구성 변화 점검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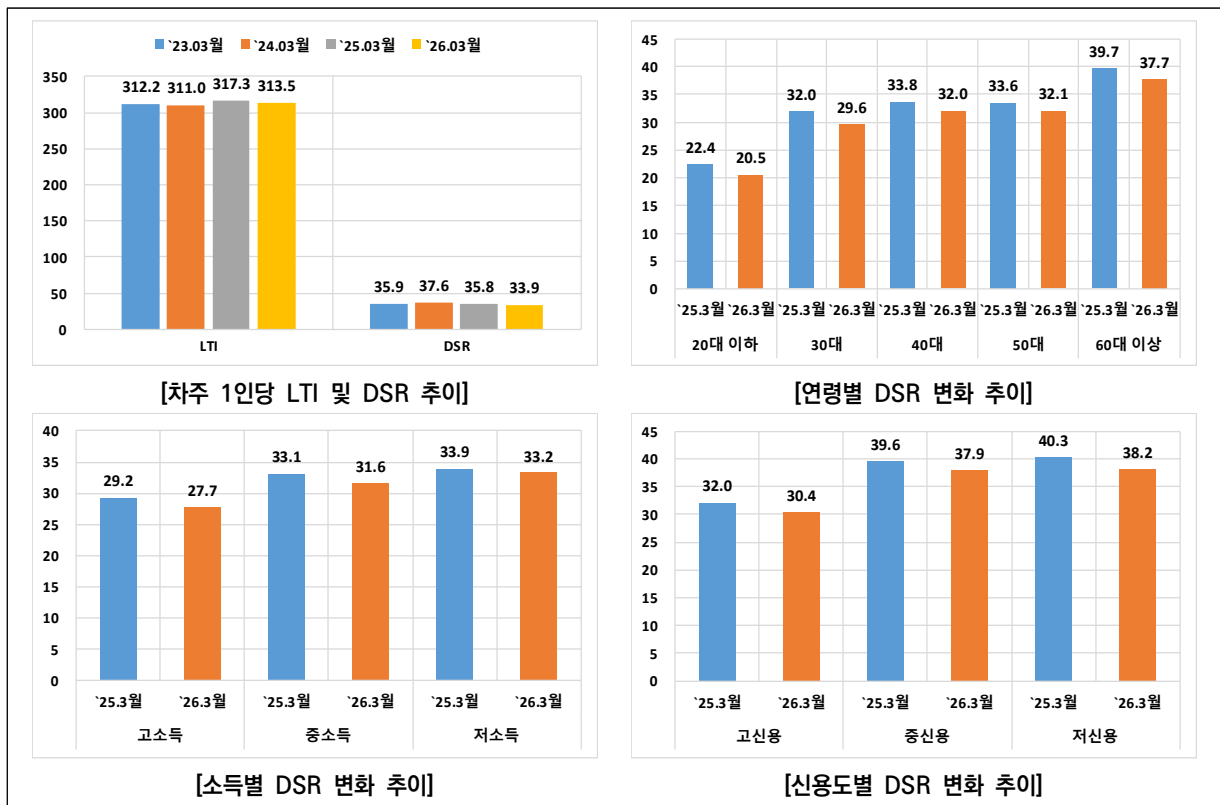


* 자료 : KCB 신용융합정보 참고 및 재구성

[그림 3] 인천시 가계부채의 차주 및 대출 특성별 현황

- 8) 소득별 부채잔액 증감률('26.3월, 전년동월대비)은 고소득 2.5%, 중소득 -0.2%, 저소득 11.4%. 소득별 2금융권 비중은 저소득이 40.4%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
- 9) 30대 2.8%, 40대 2.3%, 50대 1.9%로 30~50대는 2% 안팎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

- 2026년 3월 인천시 차주의 LTI·DSR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하락하며 상환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부담 완화의 폭이 차주별로 달라 저소득 차주의 부담은 거의 줄지 않음
- 1인당 LTI는 3.8%p 감소한 313.5%, DSR은 1.8%p 하락한 33.9%로, 스트레스 DSR 누적 효과가 반영되며 부채규모 및 상환부담이 모두 경감
 - LTI(소득 대비 부채)와 DSR(소득 대비 원리금)이 동반 하락한 것은 규제로 신규 대출이 억제되는 한편 기존 차주의 상황이 누적된 결과로, 부채의 규모와 상환부담이 함께 줄어드는 질적 개선이 진행
 - 다만 하락폭은 차주별 차이가 뚜렷하여, 청년·고신용 차주의 부담은 줄어든 반면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완화는 미미한 수준
 - 소득별로는 고소득(29.2→27.7%)·중소득(33.1→31.6%) 차주의 DSR이 1.5%p 안팎으로 하락한 반면, 저소득 차주의 DSR은 33.9→33.2%로 0.7%p 소폭 감소한데다 같은 기간 부채가 11.4% 늘며 부채 의존이 심화하는 등 상환부담이 줄지 않는 모습
 - 신용도별로도 고신용 차주의 DSR(32.0→30.4%)은 하락폭이 큰 반면 저신용 차주(40.3→38.2%)는 여전히 고신용보다 7%p 이상 높아, 신용도가 낮을수록 상환부담이 높은 구조 지속
 - 연령별로는 30대(32.0→29.6%) 등 청년층의 부담 경감이 두드러지나, 60대 이상은 DSR이 39.7%에서 37.7%로 하락했음에도 전 연령 중 가장 높아 고령층의 부담이 여전히 무거움
 - 평균 지표의 개선은 부담이 크게 줄어든 고신용·고소득층과 거의 줄지 않은 저소득·저신용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1인당 지표의 하락이 모든 차주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상환여력 격차 확대에 유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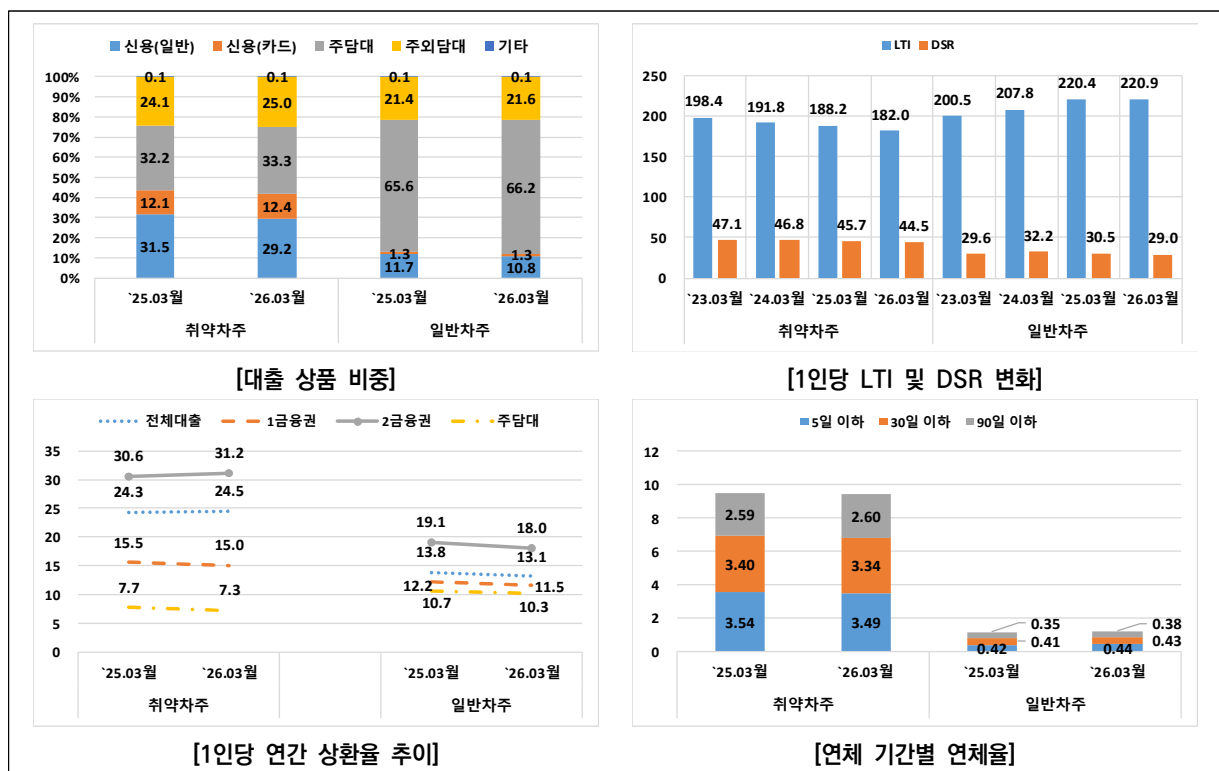


* 자료 : KCB 신용융합정보 참고 및 재구성

[그림 4] 인천시 차주 특성별 LTI 및 DSR 추이

○ 취약차주¹⁰⁾는 신용대출 중심 구성으로 상환부담이 과중한 구조가 지속되는 한편, 일반차주의 연체율 상승 및 부채 쌓임이 신규로 관찰되는 등 인천 가계부채의 위험이 취약군에 더해 일반차주로 확산하는 조짐에 유의할 필요

- 취약차주는 일반신용대출(29.2%)·카드신용대출(12.4%) 합산 비중이 40%를 넘어 일반차주(약 12%)의 3배인 반면, 주담대 비중은 33.3%로 일반차주(66.2%)의 절반에 그쳐 담보 기반이 취약
 - 신용·2금융권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의 연간 상환율¹¹⁾은 일반차주(13.1%)의 약 2배인 24.5% 수준으로, 특히 2금융권 비중이 31.2%로 전년(30.6%)보다 증가하는 등 잔액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큰 구조
 - 업권별 분석에 따르면 취약차주는 2금융권 의존도가 일반차주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부채의 비중이 큰 만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
- 취약차주의 1인당 DSR은 전년대비 1.2%p 하락한 44.5% 수준으로 일반차주(29.0%)와 15%p 이상 격차를 보이며, LTI는 취약차주가 182.0%로 하락한 반면 일반차주는 221.0%로 상승¹²⁾
- 연체율은 취약차주가 9.43%로 소폭 하락한 반면 일반차주는 1.26%로 상승하는 하는 등 엇갈린 추세를 보이며, 취약차주 연체율이 여전히 일반차주보다 8%p 이상 높은 가운데 일반차주의 부실 조짐이 짙어지는 양상



* 자료 : KCB 신용융합정보 참고 및 재구성

* 주 : DSR, 상환율은 차주 1인을 기준으로 산출

[그림 5] 인천시 취약차주와 일반차주의 가계부채 특성 비교

10) 본 고에서는 취약차주를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로 정의.

11) 연간 상환율 = ((월별 대출 원리금 상환액*12)/대출 잔액) × 100.

12) 일반차주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이라 부채 규모는 크지만 상환부담은 낮은데, 그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

○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구조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예외적으로 배려하여 총량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병행 추진

-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증가율 목표를 전년 실적(1.7%)보다 낮은 1.5%로 설정, 관리를 월별·분기별로 전환하며 GDP 대비 비율을 2030년까지 80%로 낮추는 기조를 재확인
- 아울러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기한 연장 원칙적 제한 △사업 목적 대출의 타목적(예: 주택 매매) 유용 방지 강화 등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과 더불어, △DSR 적용대상 확대 △장기·고정금리 전환 유도 등 후속 과제를 검토하는 중으로 규제 강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실제로 '26년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자, 당국은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집중 점검과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추가 관리에 나선 상황¹³⁾
- 동시에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 시 정책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분에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

○ 인천시 가계부채는 전국 추세와 달리 부채 총량이 먼저 진정되고 전통적 취약군의 부담도 완화되었으나, 위험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경직성과 일반차주 누증의 형태로 옮겨가고 있어 차주 간 격차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이 중요

- 인천 가계부채는 1금융권·주담대 비중이 높아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1인당 부채·DSR 평균이 하락 전환하는 등 외형상 건전성이 개선
- 이는 2024년 이후 강화된 스트레스 DSR와 수도권 대상 부동산 대출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국 추세와 다른 진정을 이끌고, 부채 증가를 주도하던 60대 이상·저신용 차주의 증가율을 눌렀기 때문
- 특히 대출금리·물가·환율 등 대외 여건의 부담이 지속되면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과 상환 능력이 동시에 제약되어, 평균 지표상 안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일반차주의 잠재된 위험이 실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거시 여건 변화를 가계 건전성 점검에 함께 반영할 필요
- 다만 규제 효과가 차주별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은 부채가 늘며 상환부담이 줄지 않고 일반차주는 LTV·연체율이 오르는 등 위험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점을 경계할 필요
- 따라서 평균 지표의 개선에 기대기보다, 차주 간 격차와 위험 이동을 포착할 수 있도록 DSR·연체율과 함께 물가·금리·부동산·고용 등 소비·상환 여력 요인을 함께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
- 아울러 총량규제 하에서도 서민·취약계층 자금공급은 예외로 유지되는 정책 구조인 만큼, 저소득 차주의 부채 확대가 필요 자금의 공급인지 과도한 부채 의존의 심화인지 그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
- 특히 저소득·다중채무 차주에는 일회성 지원만으로 안정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인천이 갖춘 지역 단위 금융복지 지원 기반을 활용하여 채무상담·채무조정과 근로·복지를 연계함으로써 부채와 소득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13)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2026.6.11.)에 따르면, '26년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3조 원 증가하여 전월(+3.5조 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

제조 >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

- 2026년 5월 기준 국내 반도체산업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9.5% 증가한 37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¹⁴⁾
- 5월 반도체 수출은 전월대비 16.5%, 전년동월대비 169.5% 증가한 371.6억 달러로, 중동전쟁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유지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
 - 빅테크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해 메모리 수요 확대 및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6년 들어 5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호조 지속
 -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상위 2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세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물류차질 등이 지속되고 있는 중동을 제외한 아세안과 EU 지역에서도 반도체 부문의 수출액이 증가하며 호실적 기록
 - 세부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비 254.9% 증가한 321.4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비 5.8% 증가한 44.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동반 성장
 - D램과 낸드플래시 고정가격의 전월대비 상승폭은 완화되었으나, 반도체 관련 초과수요가 지속에 따라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며 수출 단가가 상승

[표 1] 반도체 수출액 및 주요품목 가격

(단위 : 억\$, \$)

구분	'25.10	'25.11	'25.12	'26.01	'26.02	'26.03	'26.04	'26.05
반도체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157.3 (25.4%)	172.6 (38.6%)	207.7 (43.2%)	205.4 (102.7%)	251.6 (160.8%)	328.3 (151.4%)	319.0 (173.5%)	371.6 (169.5%)
D램 고정가격	7.00	8.10	9.30	11.50	13.00	13.00	16.00	20.00
낸드플래시 고정가격	4.35	5.19	5.74	9.46	12.67	17.73	24.16	26.51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2026.06.01)' 참고 및 재구성

* 주 : D램 고정가격은 DDR4 8Gb램을 기준으로 작성

- (전국) 반도체 초과수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산업의 2026년 4월 생산 및 5월 수출은 순조로운 호황 지속
- (생산지수) 2026년 4월 국내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8.2% 감소,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14)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2026.06.01)' 참고.

149.7로, 생산 호조가 지속

- '26년 4월 기준 반도체 관련 부문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108.4로, 올해 들어 기준치(10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
- 전국 반도체 제조 부문 생산지수가 184.7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감소(9.5%)했으나 여전히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고지수는 6개월 이상 전년동월비 감소세를 보여 산업 추세적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5월 반도체 총수출액은 전월대비 15.7%, 전년동월대비 154.8% 증가한 약 2,96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부문별 전년동월비 증감률은 △메모리 반도체(240.0%) △반도체 디바이스(10.6%) △반도체 제조장비(9.1%) △시스템 반도체(8.9%) 순으로, 모든 부문에서 높은 증가세
- 다만 수출 중량 기준으로는 시스템 반도체(11.9%)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여, 가격 상승분이 총수출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인천) 2026년 4월 인천 지역의 반도체 부문 생산 경기는 생산지수에 비해 재고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등 다소 부정적인 가운데, 2026년 5월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보합세

- (생산지수) 2026년 4월 기준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9.1%,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한 166.1로, 지난 3월 연초의 전년동월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후 소폭의 상승률 지속
- 다만 지난 1월까지 전년동월비 감소세를 보이던 재고지수가 4월 기준 전년동월비 147.6% 증가한 556.7로 급격히 상승하며, 기준치(100) 내외에 수준을 보이는 전국 지수와 다른 양상
- (품목별 수출액) 2026년 5월 인천시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12.1%,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한 약 165천만 달러로, 전국 단위의 추세적 증가세와 달리 등락을 반복하며 보합 수준
- 각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은 △시스템 반도체(6.0%) △반도체 제조장비(3.0%) △반도체 디바이스(-2.3%) △메모리 반도체(-8.9%) 순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감소한 점이 특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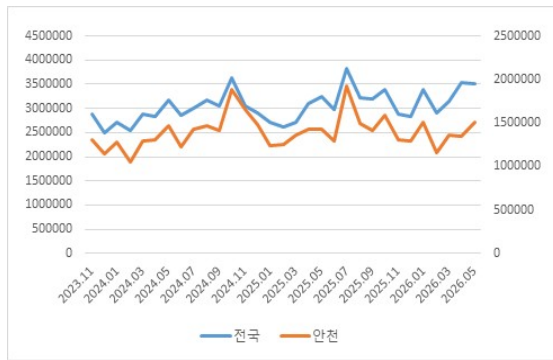
[표 2]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6.01	'26.02	'26.03 (p)	'26.04 (p)	'25.04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전자부품 등 제조업	129.8	148.0	163.1	149.7	134.2	-8.2	11.5
	반도체 제조업	152.1	188.1	204.1	184.7	163.5	-9.5	13.0
인천	전자부품 등 제조업	133.3	126.4	152.2	166.1	159.6	9.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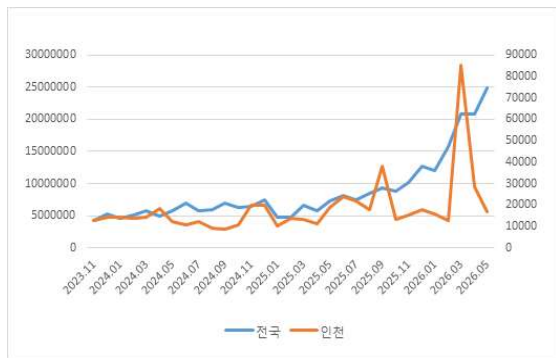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및 '반도체 제조업(C26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 지역 자료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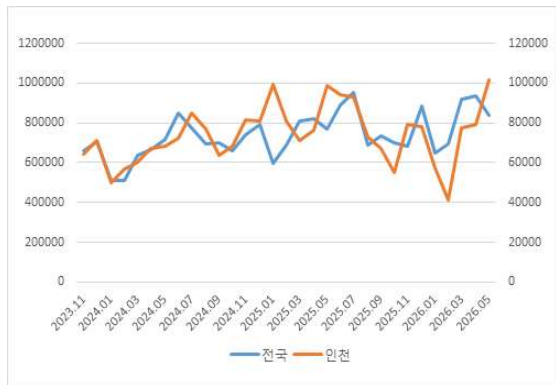
[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은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2026.05)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6.05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32,352	35.6	402,258	113.9	269,906	18,623	11.1	19,806	6.2	1,182
자동차	20,173	0.8	72,395	-5.7	52,221	1,119	-18.5	7,355	-9.3	6,236
기계장비	72,849	26.8	120,795	76.6	47,946	3,068	-52.2	3,800	-29.4	732
바이오-의약	11,031	52.7	8,343	8.8	-2,688	2,241	151.8	6,197	15.8	3,956
바이오-화장품	1,831	7.1	11,465	24.0	9,634	26	6.5	2,168	54.8	2,141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경제

5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지방 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이 후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이 5월 21일부터 시작
- 동 사업은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
 - 금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약 5만여 명 중 소속 기업이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의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 선정 근로자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 1인당 월 지원 한도는 4만 원으로, 구내식당과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홈페이지(www.atfis.or.kr/lunch)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후 기업 소재지의 지방정부에 신청할 필요

경제

오는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여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
- 숙박 할인권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노랑풍선, NOL, 여기어때 등 온라인 여행사 채널에서 1인 1매 선착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 완료 필수
 - 금번 행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2026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 홈페이지(ktostay.visitkorea.or.kr) 또는 콜센터(1670-3980)를 통해 확인 가능

구분	배포 수량	대상 지역	배포(입실) 기간	적용 숙소	할인권 종류
1박 이상 할인권	24만 장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 (서울·인천·경기 제외)	6/11 ~ 7/31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숙박시설	3만 원(7만 원 이상) 2만 원(7만 원 미만)
연박 이상 할인권	6만 장				7만 원(14만 원 이상) 5만 원(14만 원 미만)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영업자 및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과 '주택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
 - (자영업자) 우선 6월 1일부터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적용 대상을 △일반용(갑) II △일반용(을) △산업용(갑) II △교육용(을)까지 확대하고, 일반용(갑) II 이용자는 시간대별 요금뿐 아니라 단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
 - 또한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6월부터 11월 요금을 대상으로 어떤 전력요금이 유리한지 한전이 대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할 계획
 - (가계) 최근 대외여건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을 통한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
 - 금번 개선안의 핵심은 에너지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이는 것으로, 올 하반기에는 전기 사용량을 1% 이상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 당 2~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kWh당 120원의 캐시백을 제공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17일부터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개편되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
 - 금번 시행령 개편에 따라 시행일인 6월 17일 이후에는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하 '매출액 등')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 가맹점 등록이 불가
 -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업종이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
 - 가맹점 신청 당시에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이 되었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요건을 미적용할 예정
 - 또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
 - 중기부는 유효기간(3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에 해당하는 갱신 신청 기한 내에 갱신 신청서 및 부가 서류를 지참하여 갱신 신청을 진행할 것을 당부

경제 > 수도권 전철 이용객 대상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실시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6월 20일부터 시행
 -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발생한 경우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 이용을 안내해왔으나,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운임을 두 번 부담하거나 이미 재승차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운영 기준과 달라 이용객의 불편이 지속 제기
 -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6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가운데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 한국철도공사 관할 구간을 대상으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
 -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한 역의 동일 노선 게이트를 통해 15분 이내 다시 탑승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으로, 재승차 시에는 전철 이용 중 1회에 한하여 환승으로 처리해 기본운임 1,550원(10km 기준)을 면제
 - * 1회권 및 정기권 이용객, 공항철도·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전노선, 인천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금융 >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금융위원회

- 지난 6월 22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위한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어, 오는 7월 3일까지 개별 은행* 어플(App)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
 - *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병역이행자의 병역 기간 미산입)까지의 청년 중 소득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가구요건(중위소득 150~200%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
 - 직전연도(2025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 상품에 가입 가능
 - 동 상품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가입 신청 기간 이후 심사를 거쳐 7월 27일에서 8월 7일 사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최종심사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득·가구·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요건 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대해 개별 통보할 계획
 -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를 진행하려는 경우 최초 가입신청 기간(~'26.08) 내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필요
 - 동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사이트(fill4young.kinfra.or.kr)를 통해 확인 가능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

- 금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망 개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및 첨단전략분야의 국내 역량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마련

구분	주요 내용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 첨단전략 분야의 생산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유턴법」 관련 법령 재정비 •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 사업장의 생산 제품·서비스 동일성 요건 완화 • 청산·양도·축소 등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에 대한 면제범위 확대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 유턴보조금 지원체계를 '협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 • △비수도권 투자 △청년 중심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마더팩토리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차등 산정하고, 지방투자 유도를 위한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개편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 선정 단계서부터 국내 투자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역량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보조금 수령 유턴기업의 투자 이행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 • 당초 계획보다 고용을 추가 창출한 기업에 대해 사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도입 고려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 첨단산업, 제조 AI(M.AX), 공급망 등 핵심역량 보유 잠재 유턴기업을 선제적 발굴·유치 •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 구축 및 프로젝트별 전담 매니저(PM) 지정으로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 검토~이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6월 1일부터 시행

- 식약처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전제로 신약 출시 목표 기간을 240일 수준으로 단축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
- 금번 방안의 핵심은 허가·심사 인력 확충에 기반한 '전주기 규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전환으로, △허가자료 준비 단계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도입 △동시·병렬심사 기반 수시검토·보완체계 도입 등을 포함
-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는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문 또는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각 허가부서에 신청이 가능
- 금번 혁신방안에 따른 허가·심사체계 및 관련 지침 개편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보도자료' 및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

참고 자료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융합정보 집계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5.12.
- 금융위원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
-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2026.06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
- 최대한·정희원, 「인천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2025.06
- 산업통상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식비 부담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05.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 여름 숙박할인 최대 7만 원 쏜다…인구감소지역 85곳”, 문화체육관광부, 2026.05.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업자 전기 요금 부담 덜다…6월부터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5.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기 1%만 덜 써도 혜택…올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확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6.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2026.06.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 전철 15분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이달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2026.06.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3일까지 가입 신청”, 금융위원회, 2026.06.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 진출 기업, ‘유턴’ 문턱 낮춰 국내 복귀·지방 투자 유도”, 산업통상부, 2026.05.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약 허가기간 240일로 단축…의료제품 심사체계 전면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5.27.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6-06호(2026.06.26)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6년 06월 26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